

THE WAJIRA

金剛杵

第十九號

東京朝鮮佛教青年總會東京同盟發行

編輯餘言

○前에 외부러오는 더운바람을 따라 김촌山은더도다사라 지고 梅花桃花가란만히피여 새봄의香氣를가득히傳하는 봄은왔다.

○새봄을맞게되는 우리敎界에 무엇을들여새봄의人事를傳할기 아마도變치안은 이金剛杵로써하는수밖개업다.

○그러나한가지未安한것은 이번號가昨年冬期號가된것인대 佛敎는佛生음도한條件이되지안은 物質도그렇게 容易치못하잇슴으로 이리커리마루다가 奉期兼卒業生送別號를 내게된것을讀者諸位에謝過해둔다.

○번々이編輯을始作할때마다 內容을종充實히하고體材나모든것을 珍善珍美하게하여보려는 生覺은 잇스나 그所謂夢遊王京이되고 實現이 못되는것을 遺憾이라아니할수가업다.

○더구나編輯의全責任을 마라보든郭重坤氏가 김촌事情에依하여 辭退하였슴으로 생택이군이臨時로맞하게되니 內容의質이 더불모양업는것은讀者諸位의 諒解를발생이다. 「吳」

○卒業諸兄의敬意를表할 原稿가잇사오나 卷頭言으로代한遺憾도不少합니다. 그러나 卒業諸兄의玉稿가업는것을 무엇보다라고생覺합니다. 「崔」

○無虎洞中 狸作虎라드니 내가이러케하지 末席의 榮與하게되기는 此所謂고맙고환송한일이이다. 그러나 榮與하게되前보다 잘못된것이 잇다면 榮與하는것은 全無하오니 非才의 劣인것을 廣々에 謝過하오니합니다. 「許」

每三年一回發行		定價		金剛杵第拾七號
昭和四年四月三十日 印刷 昭和四年五月一日 發行 東京市外日黒町上日黒一號 總編輯兼 吳 官 守 東京市外澁谷町水川一〇番地 發行所 金剛杵社 東京市下高田町橋田七七八 印刷所 同聲社印刷所		一部	四十錢	
◆本誌代要先金		一年分	一圓	郵稅共